



정교회주보

제2551호
2025년 11월 16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오순절 후 제23주일

성 마태오 복음사도
(제6조 • 조과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6조 부활 찬양송 82
- 사도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204
- 사도경 : 로마 10,11~11,2 (봉)137
- 복음경 : 마태오 99-13 (제단복음경)131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사진 설명

기도 명부

예비 제단에서 거행되는 '봉헌 예물 준비 의식'을 통해 성반에는 '하느님의 어린양'(나중에 성체로 변화한다) 몫과 성모님, 성인들의 몫들이 자리한다. 그리고 어린양 아랫부분에는 살아있는 이들과 안식한 이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작은 조각들을 놓는다.(주보 2517호 참조)

호명되는 이름(세례명)은 기도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산 이와 안식한 이의 명부'(딤테하)라고 부른다. 명부는 원래 두 겹으로 접은 종이나 나무, 금속판으로 왼쪽에 살아있는 이, 오른쪽에 안식한 이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지금의 기도 명부는 교회에서 작성하는 명단과 신자들이 기도 받기 원하는 가족, 친지, 교우들의 이름을 적어 사제에게 건네는 종이 명단을 뜻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상과 지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선포한다. 또한 하느님께 특정 인물을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하느님 나라와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킨다. 이름이 불린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이다.

변 화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악에 물들어 생전에 죄를 짓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회개시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약의 인간들은 하느님을 보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느님의 본질을 알 수 없는 인간들이 영적 하느님을 인간적으로 판단하여 그분의 모습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적 모습은 형체가 없으므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저 느끼고 들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인간들의 간절함에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시기 위해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 형체를 갖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권능으로 당신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설명해 주시고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존재를 실재적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마음이 열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 눈이 뜨여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자기 변화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변화를 한다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은 그런 자들에게 내려옵니다. 인

간은 수많은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악의 힘이 워낙 강력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죄를 짓게 되더라도 다시 회개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회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살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어 삼십삼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사시면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죄와 투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으로 변화(성화, 聖化)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듯이 사탄의 능력이 강력하여 인간이 이길 수 없기에 끊임없는 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힘을 얻고 악과 대항하여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을 때 우리는 사탄을 멀리하고 주님을 믿고 합일한다고 여러 번 거듭하여 다짐하며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과거의 때를 벗기고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유혹을 뿌리치며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빛!

아타나시오스 리마솔의 대주교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제가 아직 젊은 수도사일 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방식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꽤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아토스 성산에서 온 노수도자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해서, 제가 그분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아토스 성산에서는 전례력이 달라서 성탄절을 12월 25일이 아니라 며칠 늦게 경축하는데, 우리는 마침 12월 25일 성탄 즈음에 그리스 북부의 도시인 테살로니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처럼 이곳도 주요 거리들이 갖가지 전등과 불빛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수도자는 아주 오랫동안 아토스산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 밤에 거리를 걸으면서 휘황찬란한 전등과 불빛으로 꾸며진 도시의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시여,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탄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이건 모두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진정 성탄절을 기념하는 방식일까요?” 그러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복된 이어, 이 모든 것

은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것이라네! 만일 성탄절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불빛을 거리에 달았겠는가? 결국 사람들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꾸민 것이라네. 성탄절을 맞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일세. 그래서 곳곳에 전등과 불빛이 반짝이도록 한 것이고. 그러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네.”

노수도자는 아주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이 집과 상점의 창문들, 거리를 수많은 불빛으로 아름답게 꾸민 것에 대해 이토록 좋은 시선과 의견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분은 제가 성탄절의 장식에 대해 비판하거나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장식을 하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분의 거룩한 탄생을 기리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만약 성탄절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것이네.” 그래서 저는 젊은 수도자로서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1월 21일(금)

성모 입당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양구 성당 철야예배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기념 철야예배가 11월 28일(금)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숙소, 식사 준비를 위해 서울 성당 사무실로 21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 제1차 세계 공의회 1700주년 기념 대규모 신학 강좌

지난 6일(목), 충남 천안에 위치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1차 세계 공의회 소집 1700주년을 기념하여 ‘니케아 신경, 우리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신학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유해무 교수, 서원모 교수, 차보람 교수가 연사로 초청되었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니케아 신경, 그리스도 안의 삶의 지침’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훌륭하게 준비된 이날 행사에는 교수, 목회자, 신학생 등 5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대주교는 발표 서두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의 축복과 기원을 전했습니다.

■ 장신대 학생들이 서울 성당 방문

지난 8일(토), 아침 성찬예배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원모 교수와 대학원생 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양구 성당 청소 및 단장

다가오는 성 안드레아 축일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8일(토)부터 10일(월)까지 서울 성당에서 봉사자 4명이 양구 성당을 방문하여 성당과 부속 건물을 청소하고, 필요한 곳곳에 페인트 칠 등 여러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먼저 해야 할 기도

지논 사부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길 원하는가? 그대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제일 먼저 그대의 적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대가 원하는 다른 모든 것을 속히 주실 것이다.”

